

제1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0. 7. 8(목) 11:00

2010 년도
시 정 보 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열망에 부응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놓여있습니다.
인천 부채가 올해말 1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지하철 2호선 건설등
대규모 예산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장동력을 소진해 가는 경제자유구역,
소외받은 구도심 재생사업 및 재정비 사업,
전국 꼴찌 수준의 학력 수준과 실업률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시민과 시의회, 시 공무원들의
희망과 열정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기 위하여 저는
첫째,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2천만 수도권 소비층과 3억 5천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배후에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면서
호남과 충청의 물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잇점을 극대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세제지원 등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함께 투자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것입니다.

셋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펀드 1조원을 조성하여
부품소재 IT등 5대 신성장 동력사업을 중심으로한
1천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질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일자리가 있는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인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여러분과 함께
투명한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시민들께 불신받았던 과거에서 환골탈태하기 위해
시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소통추진단을 구성하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민소통위원회를 신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다섯째, 급격히 증가한 시와 산하기관
부채의 축소 및 상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축전 개최, 자전거도로 등에
소요되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하여
시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10대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고
인천의 대학을 단계적으로
국내 일류이자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기초부터 고급교육, 평생교육까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하고
중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달성함과 동시에
연 4천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해
도심형 대안학교를 만들어
차별없는 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등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어울림도시를 달성하고
생명력이 살아숨쉬는 녹색도시,
인천 고유의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덟째,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OCA와의 지속적 대화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그 어떤 국제대회 보다
알차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아인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천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홉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화해협력사업을
재개하고 확대·발전시켜
남북관계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 정부에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5기 시정이 힘차게 출발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정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1만3천여 공직자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280만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인천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